빛나는 청춘들, 무명초 자르고 불문에 들다

동국대 산하 고교 학생 4명
정각원서 출가 삭발식 봉행
문화포교, 군승 등 포부 다양
친구들 현수막 들고 축하
'선연' 소년출가 진흥 효과 UP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삭발식 직후 은사스님과 행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준한 스님과 박성원 행자, 제정 스님, 돈관 스님과 박호철 행자, 정경 스님과 채민우 행자, 정관 스님과 최가현 행자.



박성원 행자와 친구들이 삭발식 직후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배궁전에 주인공이 꿈만 꾸더니 무명초 몇 해나 무성했던가. 금강보검 번쩍 깎아버리니 무한광명이 대천세계 비추네."

동국대 정각원에 행자복을 입고 장궤합장을 한 홍안의 학생들이 '삭발게'를 합송했다. 이내 은사스님들이 청수 몇 방울을 머리에 뿌리고 난 뒤 무성한 무명초를 망설임 없이 베어버렸다. 무명초를 잘라낸 행자들은 그렇게 참된 수행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돈관 스님)는 7월 11일 서울캠퍼스 법당 정각원에서 '동국대 산하 고등학교 출가자 삭발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가를 발심해 삭발식에 나선 학생들은 동대부고 박성원 행자, 동국대부속 영석고 박호철·채민우 행자, 동국대 가람고 최가현 행자로 모두 산하 고교 3학년 학생들이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산하 학교 학생들의 삭발식이 봉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가 삭발식에는 학생들의 은사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간월암 주지 정경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소림사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해 출가 학생 부모님들이 참석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제정 스님과 출가자 소속 학교 교장, 교법사, 학교 친구들도 함께했다.

돈관 스님은 출가자로 첫발을 내딛는 행자들에게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움(人身難得 佛法難逢)을 강조하며 "은사스님과 좋은 인연으로 출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사스님들은 앞으로 출가 행자들이 살아가는데 나침판이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큰 길잡이가 되어 줄 스승을 만남에 감사드리고,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라"고 당부했다.

행자들은 부처님과 은사스님께 삼배와 꽃 공양을 올렸으며, 삭발의식 이후에는 부모님께 보은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했다. 18년을 품었던 자식을 부처님께 보내는 어머니는 이내 눈물을 훔치면서도 행자의 등을 토닥였다.

삭발식이 엄숙하고 무겁지만은 않았다. 삭발식을 마치자 박성원 행자의 학교 친구들은 준비해 둔 현수막을 펼쳐 기념촬영을 하며 출가자로 나아가는 친구의 첫걸음을 축하해줬다. 준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는 박 행자는 "학교에서 신행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출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은사 준한 스님은 종립학교 불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선연'에서 인연이 됐다.

박 행자는 "홍대선원을 찾아가 뵙는데 일체 걸림없는 은사스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때 출가자의 삶을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가현 행자를 제자로 받은 정관 스님은 행자의 아버지 최종호 씨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담아 "부처님 자녀가 된 따님을 훌륭한 수행자로 키우겠다"고 인사를 전하며 "젊은 세대에 맞는 교육으로 '스님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가르치려 한다"고 밝혔다.

최 행자는 "비구니 군승이 돼 청년들에게 불교가 정말 재미있고 꼭 배워야 할 종교임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삭발식을 통해 2년 전부터 시작된 종립학교 불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선연'의 소년출가 진흥 효과가 확인됐다.

권진영 동대부속 영석고 교법사는 "'선연을 찾아서'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대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 방향을 스님과 이야기하며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도 소년출가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북·전북 사찰, 지역 불자인재 양성 나섰다

동국대 '지미불' 동참 잇달아
법주사 등 4000만원 쾌척해
백양사, 장학금 1100만원 기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소속 말사가 동국대에 장학금 4000만원을 쾌척했다. 사진은 장학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사진 왼쪽), 제18교구본사 백양사는 동국대에 장학금 1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수여식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충북 지역 본말사와 전북 지역 본사가 지역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잇달아 쾌척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소속 말사는 7월 1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112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동국대에 장학금 4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를 비롯해 소속 말사인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 안심사(주지 무경 스님), 미륵세계사(주지 법초 스님)가 동참해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충북 지역 재학생 40명에게 수여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은 '법주사·용화사·안심사·미륵세계사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부 사찰을 대표해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충청 지역 재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7월 1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3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동국대에 1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장학금은 장성·담양·함평·나주·영광 지역 장학생 11명에게 전달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장학생 여러분들이 각자 감사 편지에 남긴 사연과 함께 백양사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와 동국대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印, 불교사원 언급 13세기 비문 발견

타밀나두주서 최초 발견
인근서 안거 유적도 남아


크리슈나기리 지구에서 발견된 13세기의 불교비문. 사진출처=더힌두

남인도 타밀나두주에서 불교사원을 언급하는 최초의 석각비문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7월 3일 인도의 '더 힌두'는 새로운 비문의 발견으로 현지 불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보도했다.

타밀나두주 크리슈나기리 지구의 자가다프 마을에 소재한 망고농장에서 발견된 이 석각 비문은 13세기에 새겨진 것으로 총 9줄로 새겨져 있다. 바위의 일부가 잘려나가면서 일부 글씨와 조각이 사라졌으나 지역 상인이 땅에서 얻은 수익을 불교사원에 보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문을 판독한 연구원 C. 고빈다라즈는 "비문에는 '거룩하신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으며, 비문의 시작 부분에는 법륜과 불탑을 상징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타밀나두주에선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을 언급하는 비문은 많이 발견되었지만, 불교 사원을 언급하는 석문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문에는 카다이쿠투르(Kadaikoottur) 라는 사원에 보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발견지 근처에 위치한 카다가투르(Kadagathur)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빈다라즈 연구원은 "수년 전 카다가투르에서 초등학교 발굴 작업 중 입불과 좌불 두 개의 불상이 발견됐고 현지의 오래된 힌두교 사원에는 사원 부지가 원래 불교 사원이었음을 언급하는 비문도 남아 있다"며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불교 사원의 위치가 특정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비문이 발견된 유적지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는 법륜과 불탑이 새겨진 또 다른 암각화가 발견됐고 30m 더 떨어진 곳에는 불교승단이 안거를 보내는 곳으로 추정되는 동굴 유적이 남아 있는 등 현지 불교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사찰자산관리 '불교은행' 설립 추진

하원 부의장이 직접 제안해

최근 태국 내 사찰들의 자산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여러 스캔들이 일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자산관리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7월 12일 태국의 '파타야 메일'은 관련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8일 방콕 정부청사에서 연설한 수차르트 탄차론 하원 부의장은 태국 내 불교사찰 재정 감독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불교은행'의 신설을 제안했다. 수차르트 부의장은 "사찰의 자산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이러한 자산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라고 제안의의를 밝혔다.

불교은행의 신설 제안은 최근 태국불교계를 뒤흔든 일련의 금융 스캔들 속에서 나왔다. 특히 최근 한 대형사찰의 주지를 맡았던 스님이 갑자기 환계를 선언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사찰의 계좌에서 2200만 바트(한화 약 9억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차르트 부의장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산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들의 배후에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불교 신자인 나라에서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매우 불안하며 지체없이 해결돼야 한다"며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 순례 9일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9일 일정)
남인도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산치대탑등을 순례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인도성지순례 12일
10월28일 출발~11월08일 도착(12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일정: 인천-북경-대동-운강석굴,화엄사-현공사-오대산 5대 순례-북경-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23일~30일(6박8일)
■ 일정: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2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7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0일~10월16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가욕관-돈황석굴-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